

대한방직 부지 시민공론화위 추진

전주시, 운영 예산 1억8000만원 편성 시의회에 요청

전주 서부신시가지 옛 대한방직 부지를 어떻게 할지 시민, 각계 전문가들이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한다. 전주시는 옛 대한방직 부지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생각을 들어보고, 원하는 미래모습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기 위해 내년도 대한방직 부지 관련 시민 공론화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1억8000만원의 예산 편성을 전주시의회에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서부신시가지에 위치한 옛 대한방직 부지가 사유지일지라도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부지 자체가 시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공론화위원회는 향후 그간 개발과 보존, 특혜 등 논란을 야기해온 옛 대한방직 부지에 대한 시민,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분석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또 사회적 합의 도출과정을 거쳐 대한방직 부지의 올바른 방향을 정립하는 역할도 맡게 된다.

이를 통해 시는 △사회적 갈등 최소화 △토지소유자에 대한 특혜 논란 차단 △투명한 시장운영을 통한 행정 신뢰 향상 △시민들이 직접 정

책결정에 참여하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등을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12월 중 공론화 관련 전문가와 시민단체, 언론, 시의원, 공무원 등으로 '시민공론화를 위한 사전준비위원회(가칭)'를 구성할 예정이다. 사전준비위원회는 시민 공론화의 방식과 주요 의제, 위원회 구성, 운영기간 등을 폭넓게 검토해 공론화위원회의 출범을 준비하게 된다.

최종결 시 생태도시국장은 "시의 정책결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민주주의 방식을 실현하고자 공론화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라며 "대한방직 부지에 대한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과의 소통과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공론화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토지소유자인 ㈜자광(대표 전은수)은 지난해 11월 전주시에 일부 도유지와 사유지를 포함한 총 23만 565㎡부지에 공동주택 3000세대와 복합쇼핑몰, 430m 높이의 익스트림타워, 호텔, 문화시설 등을 건립하는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을 해왔지만 시는 이 제안이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아 '수용불가' 입장을 회신한 바 있다. 이후 ㈜자광은 지난 3월에도 재차 '전주타워복합개발' 정책제안서를 제출하고, 5월에도 일부 변경 제안서를 제출했으나 최초 제출된 주민제안 신청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 전주시의 입장이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중화산동에서 마을 어르신들이 참여했던 올 한해 공동체 활동들을 마무리하는 작은 음악회가 19일 열렸다.

한해 공동체 활동 마무리하며

중화산동 선너머 마을축제 작은 음악회

전주시 중화산동에서 마을 어르신들이 참여했던 올 한해 공동체 활동들을 마무리하는 작은 음악회가 열렸다.

이날 음악회는 그간 '행복한 선너머 너나들이' 공동체와 함께했던 중화산동 일대 어르신들 50~60여명의 지난 활동들을 담은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가야금 연주 △아리랑 변주곡 등 민요 병창 △댄스공연 △하모니카 연주 등 다양한 공연과 장기자랑이 진행됐다.

또한 △완산구청 관현악단 단원들의 플루트 연주 △중화산동 주민자치위원회의 라인댄스 팀의 댄스공연 등 초대공연도 진행돼 행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이에 앞서 '행복한 선너머 너나

이' 공동체는 올해 전주시 운두레 공동체에 선정돼 중화산동 일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매달 '기억튼튼 건강 교실'을 운영해왔다. 기억튼튼 건강 교실에서는 △사포그림퍼즐 만들기 △숨은그림찾기 및 색칠하기 △한지공예 체험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인지활동과 치매예방에 도움을 주고, 포크댄스와 뇌 활력체조를 하면서 근력운동에 도움을 주고 있다.

김경진 '행복한 선너머 너나들이' 공동체 대표는 "운두레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어르신들이 활기를 찾고 기쁘게 더 자주 해달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우리도 더 큰 보람을 느끼고 기쁜 마음으로 활동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어르신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의회 의원 5명

청소년 지원 공로 감사패

박병술 의장 등, 저소득

아이를 위한 지자체 차원

재정확보 법적근거 마련 기여



전주시의회 나선거구(동서학, 서서학, 평화·2동)에 지역구를 둔 전주시의회 박병술 의장(사진)과 양영환·이남숙·송승음 의원을 비롯해, 이경신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호서1·2·3동)이 지난 16일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소재한 평화사회복지관(관장 성동학)으로부터 전주시의 저소득 청소년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재정확보 법적근거 마련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평화사회복지관 측은 "다섯 명의 의원님들이 평소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었다"며 "지역주민의 마음으로 가슴 뛰는 의정활동과 청소년의 꿈을 향한 큰 걸음에 함께 해 주어 감사한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수여한다"고 밝혔다.

박병술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의원의 소임을 위해 노력했을 뿐인데 큰상을 받아 더욱 큰 책임을 느낀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특히 사회적 약자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완산로타리클럽

우아2동 사랑의 연료나눔

국제로타리 3670지구 전주완산로타리클럽(회장 김현준) 회원들은 우아2동(동장 오진욱) 관내 저소득가정 5세대를 찾아 겨울맞이 따뜻한 사랑 실천을 위한 연료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30여명 회원들은 우아2동 관내 연탄을 사용하는 저소득가정 3세대를 방문하여 연탄 900장을 직접 배달했다. 또한 기프보일러를 사용하는 저소득가정 2세대를 방문하여 겨울철 난방에 필요한 등유를 지원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초아의 봉사를 실천하는 국제로타리 3670지구 전주완산로타리클럽은 30여년간 지역의 불우한 복지시설과 취약계층 대상으로 후원물품 지원, 중·고등학생 장학금 전달 등 매년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지역 사회에 감동을 주고 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는 19일 전주시장실에서 사회적부동산 중개업소로 지정된 50개 부동산 중개업소와 켄트리피케이션 예방 및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중개문화 정착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사회적부동산 중개업소, '착한 임대료' 정착 앞장

전주시와 켄트리피케이션 예방

투명한 중개문화 정착 협약 체결

전주시가 도심 활성화로 인해 심각해지는 켄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적정 임대료만 받는 부동산 중개업소들과 손을 맞잡았다.

시는 19일 전주시장실에서 사회적부동산 중개업소로 지정된 50개 부동산 중개업소와 켄트리피케이션 예방 및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중개문화 정착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사회적부동산 중개업소는 시가 전주한 옥마울과 전주객사길(객리단길) 등 도심 활성화로 상가 임대료의 상승과 켄트리피케이션이 우려됨에 따라 안정적인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공동체 상생발전 공감대 확산에 선도적인 역

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김승수 전주시장과 사회적부동산 중개업소 50곳을 대표해 남궁정 사회적부동산 중개업소 대표가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중개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앞장서고, 적정 임대료만 받는 '착한 임대 문화'를 정착을 위한 노력을 해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에 앞서, 시는 약 1660개소에 달하는 전주시역 부동산 중개사무소 중 한옥마을과 객리단길 등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착한 임대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수행해 줄 사회적부동산 중개업소 50곳을 지정한다.

이들 사회적부동산 중개업소는 전체 부동산 중개사무소 중 3년 이상 운영되고 있고 최근 5년 이내에 공인

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등을 받은 이력이 없는 중개사무소 중 공인중개사협회의 추천과 담당 공무원의 현장 점검 등을 거쳐 지정됐으며, 인증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이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상가 임대료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임주인과 상인들이 급등한 임대료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내몰리는 켄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켄트리피케이션을 유발하는 임대료 상승은 공동이익을 위해서라도 이해당사자간 협력으로 해결이 가능한 사회문제"라며 "사회적부동산 중개업소와 함께 적극적으로 켄트리피케이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자전거 출·퇴근으로 생태교통도시 전주 만들어요’

시, 챌린지 참여 우수자 15명에게 시장 표창 수여

생태교통도시 조성,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여 '인정'

시민 생활 속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나선 전주시가 올 한해 자전거 출·퇴근에 솔선수범한 시민들을 선정해 시상했다.

전주시는 19일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으로 온실가스과 미세먼지를 줄이고, 법시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앞장선 자전거 출·퇴근 챌린지 참여 우수자 15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자전거 출·퇴근 챌린지는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에코바이크)을 이용해

일상생활에서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를 포인트로 환산해 자전거 이용이 가장 활발한 지역과 개인에게 시상하고 지역별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민실천 캠페인으로,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21일간 진행됐다.

이날 표창을 받은 전주시민 15명은 6개 지자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전주·광주·창원·대구·대전·수원)가 추진한 에너지 전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자전거 출·퇴근 챌린지

운동에 적극 참여해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교통도시 전주를 만들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한 시민들이다.

장병호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전주시가 자동차 중심의 생활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생태교통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만큼 일상생활에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를 조성해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면서 "그 길에 솔선수범해 타의모범을 보여준 자전거 출퇴근 챌린지 참여 우수자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겨울철 영유아 안전관리 강화

전주시, 올 연말까지 어린이집 547곳 대상

소방·전기·가스 등 시설물 안전 등 집중 점검

전주시가 영·유아의 안전하고 행복한 겨울나기를 위해 어린이집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나섰다.

시는 올 연말까지 완산권역 269개소와 덕진권역 278개소 등 전주시역 어린이집 547개소를 대상으로 동절기 대비 어린이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따뜻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것으로, 소방·전기·가스 점검을 비롯해 동절기 재난대응 매뉴얼 점검 및 시설물 안전관리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우선 시는 이달 말까지 547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1차 특별 자체점검을 실시해 시설물의 미비점을 보완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전체 어린이집의 15%에 해당하는 82개소(완산권역 40개소, 덕진권역 42개소)에 대해서는 2인 1조로 구성된

점검반이 직접 현장을 찾아 △소방·전기·가스 시설물 안전 관리 △비상재해대피시설 설비 적정관리 여부 △폭설 시 제설관련 설비 및 동파방지 대책 등을 집중 점검하게 된다.

동시에 시는 어린이집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매뉴얼 준수 여부와 공기청정 관리 실태 등을 함께 점검하고, 어린이통합차량 안전관리 현황 등도 확인할 예정이다.

시는 점검 결과 발견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조치토록 하거나, 행정처분·제재 등을 통해 신속한 보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동절기 대비 어린이집 안전점검으로 자연재해 및 화재 등으로 인한 겨울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안전한 보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대병원 백승민 방사선사, 우수논문상 수상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은 영상의학과 백승민 방사선사가 최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년도 대한방사선사 추계 학술대회 및 동아시아 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상 및 구연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백승민 방사선사는 이번 학회에서 '동정맥류 중재적 시술 시 3D Printer로 제작된 방호용구에 의한 환자선량 감소효과'라는 주제의 논문을 발표했다. 만성신부전증 환자에서 협착이나 혈전 등에 의해 혈액투석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혈관성형술 또는 혈관용해술을 시행하여 혈액의 흐름을 원활히 해주는 중재적 시술이 필요하다. 하지만 AVF PTA 시술은 비교적 시술시간이 길고, 여러 번 반복적으로 시술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환자의 방사선 피폭에 의한 위험도가 높다. 특히 시술을

위한 전지위치가 상완일 경우 환자의 방사선 감수성이 높은 표재성 장기(수정체, 갑상선, 생식선)는 시술영역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방사선 피폭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수 있다.

백승민 방사선사는 동정맥류 중재적 시술 시 관심 영역 외 환자의 주요 표재성 장기의 피폭 선량을 저감할 수 있는 방호용구를 3D 프린팅을 이용해 자체 제작해 적용, 중재적 시술시 환자의 불필요한 선량의 감소를 시도 있었고 이번 학회에서 그 결과를 발표했다.

학회에서는 3D 프린팅으로 제작된 방호용구가 방사선 피폭에 의한 위험도가 높은 시술에서 환자의 선량감소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 방호용구의 유용성 및 필요성을 높이 인정해 우수논문상과 구연상을 수상했다. /김윤상 기자